



반려견,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가?



새 식구 맞는 마음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준비를



가족구성원 동의 구하는 게 최우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여부 고려
최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판단도

17년 전 병원 개원 초기 어느 때 즈음이었던 것 같다. 나이 드신 백발의 할머니가 낡은 백팩을 메고 진료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백팩 속에서 시추를 꺼내곤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했다. 그렇게 그 할머니는 나의 고객이 됐고 시추 초롱이는 언제나 백팩 안에 있었다. 그렇게 10여년이 흐른 어느 날 어김없이 예방접종을 하러 내원한 할머니가(그날은 초롱이가 유모차에 실려왔다) 한숨을 쉬며 얘기하는 것이었다. “이젠 나이가 들었 허리도 꼬부라지고 초롱이 매일 오전 허난 힘든게. 어땠 야이가 나보다 빨리 죽어서 될건디 걱정이라. 내가 먼저 죽으면 돌봐줄 사람도 아닐건디.” 할머니는 90 중반이 됐고 초롱이는 이제 막 18살이 돼 있었다. “아이고 참춘, 야이 하늘나라 보낸 후에도 더 오래오래 건강하실 거난 걱정 하지 마셔.” 이렇게 대답하고는 웃으면서 보내드렸다. 그리고 1년여 즈음 시간이 흐른 것 같다. 그 할머니의 부고소식

이 들려왔다(나의 병원이 자그마한 농촌마을에 위치해 있어서 이러저러한 소식이 자주 들려오곤 한다). 나는 초롱이의 거취가 궁금해 할머니의 주변으로 수소문해보니 초롱이는 이미 6개월 전 무지개다리를 건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28일 발표한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2018년 511만 가구 대비 80만 가구가 증가한 591만 가구로, 개는 전년 507만 마리, 고양이는 128만 마리에서 각각 91만 마리, 130만 마리가 늘어나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계속 늘어가는 1인 가족의 증가와 고령화가 늘어나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대체할 만한 대상으로 애완견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 이미 동물을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같이 공존하고자 하는 인식의 변화가 사회 전반에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이다. 거기에다 서로 경쟁하듯 수없이 쏟아내는 각종 대중매체의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반려견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한 생명체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에서 동물을 새로 맞이하는 행위는 '분양'이 아니라 '입양'이 맞는 표현이다.

반려견을 새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의 동

의를 구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 중 반려견과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면 15년 이상의 세월을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둘째로 반려견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인지 살펴봐야 한다. 이를테면 집은 좁은데 대형견을 입양한다면 반려인이나 반려견이 모두 쾌적하고 깔끔한 곳에서 일상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에 맞는 반려견의 크기, 활동성, 특징 등을 확인하고 적합한 견종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로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반려견을 키우는 일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마련이다. 그만큼 많은 사랑과 또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반려견을 키우려면 한때의 작고 귀여운 모습만을 상상하며 충동구매 하듯이 입양해서는 안된다. 살아있는 생명을 책임져야 하기에 귀찮거나 때론 힘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결국 유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구조·보호한 유실·유기동물은 13만 5791마리이다. 이중 제주도에서만 제주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유기동물은 모두 8111마리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중 주인을 만나 입양된 경우는 13.36%인 1084마리에 불과하다.

<강성진·가람동물병원장>



영화觀

김희애라는 세계

40여년 연기... 대체불가 배우
영화 '윤희에게' '허스토리'로
다른 매력 선보여... 늘 도전



영화 '윤희에게'.

무려 30%에 육박하는 종합편성채널 드라마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시청자들은 물론 대중들에게도 무수한 화제를 만들어낸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16부작의 이야기를 끝냈다. 완벽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던 어느 부부에게 생긴 균열이 만들어 낸 감정의 크레바스를 '따라따' 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극적인 연출과 적역을 맡은 배우들의 화려한 연기로 채워낸 드라마 '부부의 세계'. 무엇보다 '부부의 세계'는 김희애라는 배우의 진가를 만천하에 호령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인기에 대한 가장 적합한 평가일 것이다.

1980년대에 데뷔, 40년에 가까운 연기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배우 김희애는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누구도 닮지 않은 자신의 매력과 연기를 선보여온 대체불가의 배우다. '놓치지 않을게요'라는 광고 속 그녀의 대사는 그녀의 연기 세계와 꼭 어울리는 과정과 결과를 보여준다. 그녀는 늘 도전했고 힘겹고 근사하게 성취해냈다. 단순히 우아하고 지적인 배우라는 가벼운 인상 비평에 그치기에 그녀는 훨씬 웅장한 배우다.

'부부의 세계' 이전 그녀가 선택한 두 편의 영화를 보면 배우 김희애의 여전한 활력과 한결 자유로워진 자신감을 짐작할 수 있다. 임대형 감독의 독립 영화 '윤희에게'에서 타 이틀뿐인 윤희를 맡은 그녀는 딸을 데리고 혼자 사는 이혼 여성이자 동성애자 캐릭터를 연기했다. 어느 날 윤희에게 몇 년 전 사랑했던 동성 연인의 편지가 일본으로부터 도착하고 윤희는 아직 멈추지 않은 시절을 다시 만나러 딸과 함께 떠난다는 내용의 '윤희에게'는 '러브레터'의 도시 오타루를 배경으로 세월이 만들어낸 결들을 찬찬히 살피는 영화다. 먹고 사는 일이 버거운 중년 여성이자 이제 곧 성인이 되는 딸을 키우는 엄마 그리고 다시금 떠오른 첫사랑에 숨길 수 없는 흥조를 드러내는 연인의 얼굴까지 김희애는 거의 변화지 않는 스타일링 속에서 미묘한 표

정과 눈빛의 깊이로 이 여성의 짧고 긴 여정을 몽클하게 이끌고 간다. '윤희에게' 이전에 선보인 '허스토리'에서의 김희애는 또 다르다. 부산 사투리를 구성지게 구사하는 문정숙 사장 역을 연기한 배우 김희애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6년 동안, 23번의 재판을 함께 치른 역사적 인물을 힘있게 만들어 낸다. 가진 건 돈 뿐이라고 호기롭게 얘기하던 문정숙이라는 인물의 생동감은 이 인물에 깊이 감화한 배우의 노력과 열정 덕이었음을 이 작품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호통과 고함으로 스스로의 속내를 뜨겁게 발산하던 김희애의 선동은 작품 속에서 드물었고 그 도전을 그녀는 또 한 번 해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배우 김희애는 각자 다른 대표작을 가지고 있는 배우다. 연하남과의 뜨거운 로맨스로 화제를 모은 '밀회', 김수현이 만들어낸 가장 격렬한 캐릭터를 연기했던 '내 남자의 여자', 어린 여성배우들과 사려 깊은 앙상블을 만들어냈던 '우아한 거짓말' 등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배우 김희애는 언제나 근사하고, 단단해진다. 김희애가 배우로서 쌓아 올리고 있는 견고한 성의 튼튼한 외부가 이제 거의 다 완성된 기분이다. 앞으로 몇 십년 후까지 그녀의 섬세한 손길로 그 성의 내부 또한 아름답게 채워지기를 기대한다. 얼마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개척자이자 지휘자인 그녀의 다음을 기다릴 것이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novita
A KOHLER COMPANY

사랑하는 가족에게

노비타 비데
선물하세요 孝

이벤트 기간 : 2020.05.11 ~ 06.30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제주시 연삼로17(연동)



₩229,000



₩259,000



₩229,000



₩229,000